

아일랜드 ODA 현황

아일랜드 개발협력단(Development Cooperation Ireland)이 최근 발간한 2004년 연례 보고서(Annual Report)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2004년에 양자 및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총 4억 8,800만 유로 규모의 대외원조(ODA)를 집행한 바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I. 아일랜드 ODA 지원 규모

- 아일랜드는 총 대외원조 예산의 50%를 최빈국에 지원하고 있고, UN이 설정한 기준(GNP의 0.15%)을 초과하여 최빈국에 원조를 하는 세계 6대국의 하나임. 또한 OECD 회원국 중 9번째의 공여국임.
- 총 ODA 지원액(2004년): 4억 8,800만 유로
 - 2003년에는 4억 4,500만 유로 지원
- GNP당 ODA 비율: 0.40%
- GNP(2004년): 1,220억 유로

II. 양자 협력 프로그램

1. 개요

- 아일랜드는 2004년에 양자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미개발국에 3억 2,900만 유로를 지원함.
 - ODA 지원 프로그램은 에티오피아, 레소토, 모잠비크, 탄자니아, 우간다 및 잠비아 등 사하라 이남 최빈국과 동티모르(2003년 이후)에 집중
- 2004년도 지원사업은 HIV/AIDS 고아 등 개도국 내 취약 계층인 아동들에 대한 교육,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어 추진됨.
 - 개도국 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는 총 원조예산의 13% 정도

2. 국가별 지원 현황

- 에티오피아
 - 2004년에 2,750만 유로 지원
 - 인구 3만 6,000명당 의사가 1명인 현실을 감안, 자격을 갖춘 의료 인력을 각 지방에 파견하는 방

안 검토 중

- 현재까지 2,800명이 파견되었고, 7천여명이 연수 중

□ 모잠비크

- 2004년 2,840만 유로 지원
- 아일랜드 정부는 8년간 모잠비크에 대해 공적 지원을 해왔으며 빈곤 감소를 위해 새로운 Country Strategy Paper(CSP 2004~2006)를 입안, 추진 중

□ 탄자니아

- 2004년 2,200만 유로 지원
- 2004년은 탄자니아 지원을 시작한 지 25년이 되는 해로서 탄자니아 정부의 '빈곤 감소 전략(Poverty Reduction Strategy)'에 따라 지역 개발, 인권, 농업, 건강 및 교육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

□ 우간다

- 2004년 3,070만 유로 지원
- 우간다 정부의 '빈곤 근절 활동계획(PEAP: Poverty Eradication Action Plan)'과 연계하여 정부 기능 증대, 사법, 부패 방지 및 민주화 등을 촉진하고 북우간다 분쟁 종식을 위한 안보 및 갈등 해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.

□ 기타

- 잠비아에 1,660십만 유로, 레소토에 1,060만 유로, 동티모르에 370만 유로, 남아공에 950만 유로, 짐바브웨에 70만 유로, 발칸 지역 및 CIS에 620만 유로, 팔레스타인에 200만 유로 지원

3. 긴급 재난 구조기금

□ 지진, 해일 등 자연재해 발생시, 아일랜드는 인도적 차원의 긴급 재난 지원을 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약 40여개 재난 피해국에 3,800만 유로를 지원함.

- 아프리카: 24.6백만 유로
- 아시아: 4.3백만 유로
- 중동지역: 1.3백만 유로 등

□ 특히 지난해 쓰나미 사태 발생시, 아일랜드는 1백만 유로를 즉시 지원하였고 Ahern 총리는 2005년도 ODA 예산에 구조기금으로 1천만 유로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.

4. NGO 지원

□ 아일랜드는 관련 NGO들을 통한 개도국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는 바, 2004년 주요 NGO(CONCERN, Christian Aid, GOAL 등)들이 추진 중인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(MAPS: Multi Annual Programme Scheme)에 약 3,800만 유로를 지원함.

Ⅲ.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

1. 개요

□ 아일랜드는 2004년 EU, UN 및 기타 국제기구를 통해 1억 5,900만 유로를 지원

2. EU 차원의 협력

□ 아일랜드는 2004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개

발협력분야에서의 정책적 우선 순위를 빈곤, HIV/AIDS 근절 및 아프리카와의 협력 증진에 두고 EU 개발 협력장관 회의(2004년 6월)를 개최하는 등 최빈국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, 2004년에 7,400만 유로의 개발기금을 EU 집행위에 납부함.

- 개발협력단 기여금: 4.4백만 유로
- 농업부 기여금: 6.09백만 유로

다. 국제 농업 개발기금(IFAD)

- 2004년에 37만 유로 지원

3. UN 및 관련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

1) UN

- 2004년 2월, 아일랜드 개발협력단 및 보건부는 UNICEF, UNAIDS, WHO의 후원하에 'Breaking the Barriers-Partnership to Fight HIV/AIDS in Europe and Central Asia' 라는 제하의 각료 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, 2004년 UN(UNDP, UNICEF, UNHCR, UNAIDS, WHO 등)에 4,300만 유로의 자발적 기여금을 납부함.

2) UN 농업 및 식량 기구

가. UN 식량 농업 기구(FAO)

- 아일랜드는 2004년 FAO 활동을 위해 약 148만 유로를 지원함.
 - 연례 기여금: 91만 유로
 - 우역(牛疫)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(Global Rinderpest Eradication Programme) 지원액: 25만 유로
 - FAO/WHO 신탁 기금: 3만 유로 등

나. 세계 식량 프로그램(WFP)

- 2004년에 약 1,050만 유로의 기여금을 납부함.

IV. 관찰 및 평가

- 아일랜드 대외원조 사업은 모두 무상원조(Grant)이며 외교부 내 개발협력단(DCI: Development Cooperation Ireland)이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. 또한 아일랜드는 총 ODA 규모의 약 67%(3억 2,900만 유로) 정도를 양자간 채널을 통해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으며,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외원조뿐 아니라 관련 NGO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공적 원조를 수행하고 있음.
- 2004년 총 ODA 규모는 4억 8,800만 유로로서 2003년의 4억 4,500만 유로에 비해 약 9.6%가 증가한 바, 특히 2005년 ODA 예산으로 5억 4,500만 유로를 편성한 점을 감안시, 아일랜드의 대외원조 규모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[자료: 주아일랜드 대사관]